

Dryden의 서사시의 실패에 관하여

송 낙 현

영문학의 시대 구분에 있어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말엽에 이르는 시기는 꾀 길기는 하지만, 하나의 시기로 보통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만큼 그 특색이 확실히 규정되지 못하여 다양한 이름을 가진 시기는 없을 것이다. 문학사가들은 이 시기를 *The Enlightenment*, *The Age of Reason*, *the Neoclassical Period* 또는 *The Augustan Age*¹⁾ 등등으로 불러왔지만 그 어느 이름도 이 시기의 성격을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반론이 여기 저기에서 나오고 있다.²⁾ 근래까지 소홀히 다루어졌던 이 시대에 대한 연구가 깊어짐에 따라 그 성격이 더 뚜렷이 밝혀지겠지만, *Augustan* 및 *Neoclassic*이라는 말이 풍기는 성격, 즉 고전에 대한 존경 또는 숭상이 그 특징의 일부인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것은 물론 이 시대 만의 특징이 아니고 *Renaissance*시대로부터 내려온 것이지만 (그리고 여기에 *Neoclassical*이란 호칭의 약점이 있지만) *Dryden*과 *Pope*의 시대에는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비평의 영향이 가세하여, 고전, 특히 *Homer*와 *Virgil*에 대한 숭상이 절정에 달했고, 그들의 서사시(*Epic*)는 성경 다음으로 성스러운 작품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모든 문학의 장르 중에서 *Aristotle*의 권위를 무시하면서까지³⁾, 서사시가 가장 우월하다고 인정되었다. 예컨대 *Mulgrave*는 *An Essay upon Poetry* (1682)에서 다음 같이 서사시인을 최고의 자리에 떠받들고 있었다 :

- 1) *The Augustan Age*란 명칭은 1660년부터 1750년 정도까지의 시기에 사용하기로 통일되어가고 있는 듯함. 가령 *Ian Jack*의 *Augustan Satire*에는 *Intention and Idiom in English Poetry 1660~1750*라는 부제가 있음.
- 2) 가령 *Geoffrey Tilotson* 의 편찬의 *Eighteenth Century English Literatur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9)의 "Introduction", 또는 *Donald Greene*의 "Augustinianism and Empiricism," *Eighteenth-Century Studies*, 1 (1967~68) 등 참조.
- 3) *Aristotle*의 *Poetics*의 26장에서 "..., it is apparent that tragedy, since it is better at attaining its end, is superior to epic."이라 했다.

By painful steps we are at last got up
Parnassus hill, upon whose Airy top
 The *Epic* Poets so divinely show,
 And with just pride behold the rest below.
 Heroic Poems have a just pretence
 To be the chief effort of human scene,
 A work of such inestimable worth,
 There are but two the world has yet brought forth,
 Homer and Virgil.⁴⁾

그리고 여러 시인들이 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서사시를 쓰기도 하고 Dryden과 Pope처럼 포부만이라도 품었었다. 이 포부는 다만 개인적인 명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개는 모국어로 웅대한 서사시를 씀으로써 모국어의 위대함을 실증하고 모국을 빛내겠다는 애국적 동기가 결들어 있었다. 예컨대 Milton은 그의 거대한 시를 계획한 동기를 이렇게 말했었다:

(I decided) to be an interpreter and relater of the best and sagest things among mine own Citizens throughout this Iland in the mother dialect. That what the greatest and choicest wits of *Athens*, *Rome*, or modern *Italy*, and those Hebrews of old did for their country, I in my proportion with this over and above of being a Christian, might doe for mine.⁵⁾

Dryden도 또한 서사시를 쓰려는 계획의 동기를 "This, too, I had intended chiefly for the honour of my native country, to which a poet is particularly obliged."⁶⁾라고 말했다.

이렇게 서사시에 대한 숭배와 포부가 팽배한 시대에는 훌륭한 서사시가 탄생되기를 기대할 만하나 문제는 이 시대에는 이렇다 할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 시대의 대표적 시인인 Dryden이나 Pope에게는 기대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주로 Dryden에 있어서의 서사시의 불모의 원인을 단편적으로나마 고찰하려는 것이다.

- 4) Spingarn, *Critical Essays of the Seventeenth Century*, ii, 295. 이 귀절은 E.M.W. Tillyard 저, *The English Epic and its Background* (London: Chatto and Windus, 1954), pp.455~6에서 인용됨.
- 5) *Reason of Church Government*, ii. Introduction; Columbia Edition, iii. I. p.236. 이 귀절은 Tillyard (pp.2-3)에서 인용한 것임.
- 6) "A Discourse Concerning the Original and Progress of Satire," *Essays of John Dryden*, ed. W.P. Ker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1961), Vol. II, p.38. 앞으로 "A Discourse Concerning... Satire"로 줄임. 또한 W.P. Ker 편찬의 *Essays of John Dryden*은 W.P. Ker, I 또는 II로 줄임.

물론 서사시의 정의를 확대하여,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서사시적 개념과 정신에 적합 여부로 봐서 Dryden의 어떤 작품, 예컨대 *Absalom and Achitophel*, 또는 *The Hind and the Panther*⁷⁾, 또 Pope의 *Dunciad*나 Homer의 번역을 서사시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Dryden이나 Pope, 또는 그 동시대인들이 거론한 서사시는 Homer나 Virgil적인 것이지 “a literary form which includes the *Iliad*, *The Prelude* and *War and Peace*”⁸⁾는 아니다. Dryden은 심지어 Milton의 *Paradise Lost*도 엄밀한 서사시로 보기 꺼려하면서, “As for Mr. Milton, whom we all admire with so much justice, his subject is not that of a heroic poem, properly so called. His design is the losing of our happiness; his event is not prosperous like that of all other epic works. His heavenly machines are many, and his human persons are but two.”⁹⁾라고 말했다.

Dryden도 이 시대의 문예 사조에 어긋남이 없이 여러 기회를 통하여 이 영웅시 또는 서사시에 대한 숭배를 피력했고 자신의 제작 계획도 표명했다. 그는 “Dedication of the Aeneis”에서 Heroic Poem을 “undoubtedly the greatest work which soul of man is capable to perform”¹⁰⁾이라 일컬었고, *Paradise Lost*를 Opera로 개작한 *The State of Innocence*의 서문에서도 “Heroic Poetry...has been estimated, and ever will be, the greatest work of human nature”라고 했다. 또한 그의 만년에 서사시에 관한 그의 생각을 가장 상세히 피력한 “A Discourse Concerning... Satire”에서, 기독교화된 서사시를 쓸 수 있는 시인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했다 :

...who being conversant in the philosophy of Plato, as it is now accommodated to Christian use; for (as Virgil gives us to understand by his example) that is the only proper of all others for an epic poem; who to his natural endowments, of a large invention, a ripe judgement, and a strong memory, has joined the knowledge of the liberal arts and sciences, and particularly, moral philosophy, the mathematics, geography and history, and with all

7) Cambridge의 M.A. Radzinowicz 교수는 *The English Epic*, “Spencer to Pound”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The Hind and the Panther*를 서사시로 다루었음.

8) Paul Merchant, *The Epic* (London: Methuen & Co. Ltd., 1977), p. 1.

9) “A Discourse Concerning...Satire,” W.P. Ker, II, p. 29. 이 귀결에서 Dryden은 heroic poem과 epic을 동의어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0) *Ibid.*, p. 154.

these qualifications is a born poet; knows and can with all these qualifications is a born poet; knows and can practice the variety of numbers, and is master of the language in which he writes.¹¹⁾

이렇게 고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일이지만 Dryden이 그 일을 해 볼 포부와 계획을 품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그가 *Aureng Zebe*를 Earl of Mulgrave에 헌납한 글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연극의 제작에 재간이 부족하고 그보다 더 나은 희곡 작가들도 많으니, 이제는 극장에서 물러나서 그의 희곡의 결함을 서사시를 씌으로써 보충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고, 그가 계획하고 있는 서사시에 관해서 "The subject is great, the story English, and neither too far distant from the present age, nor too near approaching it."¹²⁾라고 그 주제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아마도 Stuarts왕가의 고난과 승리를 그림으로써 Charles 2세에게 이 서사시 제작을 위한 금전의 원조를 바랬던 것이다. 그리고 약 20년 후 "A Discourse Concerning...Satire"에서 그가 계획했던 서사시를 설명할 때는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다. 여기에서는 "Of two subjects...I was doubtful whether I should choose that of King Arthur conquering the Saxons..., or that of Edward the Black Prince, in subduing Spain, and restoring it to the lawful prince..."¹³⁾라 했는데 이 두 주제 중에서 후자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1년간에 걸친 사건으로서 서사시의 규격에 알맞고 그 행위가 위대하고, 사건이 서사시에 어울리며, 영국인의 관대함을 보일 수 있고, 여러 아름다운 삽화를 줄거리 사이에 끼어 넣어 거기에 주요 영국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그 속에 그의 현존하는 친구 및 후견인을 나타내고 왕실 계승의 계보를 암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Dryden은 이러한 계획을 한지 얼마 안되어 포기해 버리고 끝끝내 서사시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이유가 뭇인가를 Dryden 자신은 다음과 같이 명백히 말하고 있다 :

...with these helps...I might perhaps have done as well as some of my predecessors, or at least chalked out a way for others to amend my errors in a like design. But being encouraged only with fair words by King Charles

11) W.P. Ker, II, p. 36.

12) C.E. Ward, *Life of John Dryden*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1), pp. 110-11.에서 인용.

13) W.P. Ker, II, p. 38.

II, my little salary ill paid, and no prospect of a future subsistence, I was then discouraged in the beginning of my attempt; and now age has overtaken me, and want, a more insufferable evil, through the change of the times, has wholly disenabled me.¹⁴⁾

즉 그가 서사시를 계획했던 당시는 임금님이 금전적인 지원을 안해줘서 궁핍하여 탄 작품을 쓰느려고 그 계획을 포기했고 이제는 나이도 들고 세상이 바뀐 바람에 돈이 생길 곳이 없어져서 도저히 그 일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Dryden의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싶어한다. 예컨대 Peter Thorpe는 꼭 Dryden이나 Pope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why the eighteenth century could not produce even one [epic] is a difficult question.”이라고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추측하고 있다:

One possible reason is that to have a great epic a nation must have a heroic image of man and of itself. If this is true, then by the eighteenth century it was too late, for this period marks the major shift from grand and traditional literature to writing that is more relevant to the modern, middle-class man.¹⁵⁾

즉 18세기에는 중산 계급이 대두하여 독자층의 취미·경향이 바뀌어 영웅 서사시는 많은 독자의 구미에 맞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골동품이 되어 버려서 유능한 시인은 이것을 만들어 내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Dryden은 “A Discourse Concerning...Satire”에서 현대의 여러 서사시를 살펴 보고 비평하면서 이들의 결함을 여러모로 지적하고 나서, 그 서사시들이 고대의 서사시에 비해 성공하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고대인과 현대인의 종교의 차이에 있다(“The fault is laid on our religion; they say that Christianity is not capable of those embellishments which are afforded in the belief of those ancient heathens.”¹⁶⁾)고 하는 일부 비평가의 의견에 반론을 전개한다. 즉 이 신앙의 차이는 당연히 인간관,

14) Ibid.

15) Peter Thorpe, *Eighteenth Century English Poetry* (Chicago: Nelson-Hall Co., 1975), p. 103.

16) W.P. Ker, II, p. 30.

이상적 인간상의 차이를 낳게 하는데 고대의 이상적 인간은 힘세고 용감하고 활동하는 인간으로서 서사시의 영웅적 주인공에 적합함으로써 고대 서사시를 embellish할 수 있으나 현대 Christianity의 이상적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참고 견디며 명예와 자존심에 기인하는 영웅적 행동을 삼가하는 인간이며 그에게는 겸손과 체념이 으뜸가는 미덕이다. 이런 인간은 서사시의 주인공에 어울리지 않음으로 현대 Christianity의 시대에는 성공적인 서사시의 탄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위에 인용된 Thorpe의 의견과 어떤 면에서 매우 흡사하다. 한 국민이 위대한 서사시를 탄생시키려면 그 국민이 인간에 대하여 영웅적인 이상을 품어야 하는데 18세기에는 이것을 상실하게 되어 서사시가 안 나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인간에 대한 이상이 달라지고 인간관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18세기의 미덕은 역시 겸손, 인내, 체념이겠지만 이것을 이 시대에는 더 비기독교적인 낱말로 중용, 양식, 이성, 교양 등으로 불렀을 것이다. 이 미덕은 물론 영웅적인 용기, 힘, 활동 등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야만적이라고 볼 것이다. 이런 인간관에서는 서사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Dryden은 이 생각에 다음처럼 반대한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 각기의 직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개 Christian으로서의 미덕은 인내, 복종, 체념 따위일지 모르나 사회 지도자, 책임자로서의 임무는 그와 다르다고 다음 같이 계속한다 :

but those of a magistrate, or general, or a king, are prudence, council, active fortitude, coersive power, awful command, and the exercise of magnanimity, as well as justice. So that this objection hinders not, but that an Epic Poem, or the heroic action of some great commander, enterprised for the common good, and honour of Christian cause, and executed happily, may be as well written now, as it was of old by the heathens.¹⁷⁾

따라서 고대인과 같은 재간만 있고 고대 언어 만큼 위엄있는 언어만 개발한다면 현대에도 서사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인용된 것처럼 Dryden은 왕의 지원만 있었다면 자신이 그 일을 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탄하고 있다.

Christianity가 서사시를 약화시키는 또하나의 요소로서 위대한 프랑스의 비평가인 Boileu가 "the machines of our Christian religion, in

17) Ibid., p. 31.

heroic poetry, are much more feeble to support that weight than those of heathenism.”¹⁸⁾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도 Dryden은 반론을 펴서 Christian machines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고대 이교의 신들은 인간사, 특히 지상의 전쟁에 간여하여 (물론 그 전쟁 자체가 신들의 섭리이지만) 여러 신들이 싸우는 양편에 갈라서서 응원하고 때로는 직접 지상에 내려와 전세에 간섭했다. 아니, 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었다. 동등한 능력을 가진 신들이 조종하는 싸움이어서 그 귀취가 흥미롭다. 그러나 Christianity의 서사시에서는 machines로서 하느님과 천사들 및 이에 대항하는 악마와 그 부하들이 작용해야 하는데 천사와 악마의 싸움은 처음부터 천사가 이길 것이 너무 뻔해서 얘기의 진행에 흥미를 느낄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Dryden은 구약 성서를 잘 살펴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즉 Daniel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교도인 페르샤인과 그리스인에게도 수호 천사를 배당했고 이 천사들이 유대족의 수호천사인 Michael과 분명히 다투고 있다. 이 수호 천사들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피조물에게 복을 내리려는 그 오묘한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하여 제각기 하나님에게 봉사한다고 믿으면서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서사시인은 이러한 수호 천사를 machines로 사용할 수 있다고 Dryden은 주장한다. 또 Job을 보면 Satan이 하나님의 승락을 받고 악한 짓을 할 수도 있으며 또 그의 간교로 더 우월한 자를 속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Milton이 *Paradise Lost*에서 Satan으로 하여금 Uriel에게 천사처럼 나타나게 하여 그를 속이게 함으로써 이미 그 예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Christianity의 서사시에서도 고대 이교의 서사시의 그것보다 못지 않은 machinery를 쓸 수 있다고 Dryden은 주장하는 것이다.¹⁹⁾ 따라서 Dryden에게는 종교와 인간관의 변화가 서사시를 쓰지 못하게 한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Dryden이 이렇게 기독교적인 machinery, 따라서 기독교적인 서사시의 가능성을 역설하는 것을 보고 Basil Willey는 다음과 같이 의미해하고 있다:

It is strange to contemplate the aged Dryden writing thus hopefully of the prospects of heroic poetry so late in the seventeenth century, for as we can now see, the Renaissance impulse to excel in this kind was by then

18) Ibid., p. 32.

19) Ibid., pp. 34-37.

nearly exhausted, and 'the town' which in the next generation became excited over the *Essay on Man* would have scorned Dryden's proposed machinery, unless it has been used, like Pope's sylphs in the *Rape of the Lock*, in a mocking vein.²⁰⁾

Willey에 의하면 17세기 말엽에는 위대한 서사시에 대한 욕구가 거의 다 식어버린 이유는 17세기 초부터 Bacon을 기수로 하여 일기 시작한 과학적 정신 때문이라고 한다. Bacon은 다만 머리 속에서만 추상적인 논리를 전개시켜 체계화함으로써, 마치 거미가 자기 자신의 배 속에서 실을 뽑아내어 복잡한 거미줄을 치듯이 이 세상을 설명하려던 Scholasticism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여, 모든 진실을 논리로써가 아니라 감각을 통하여 외부 세계와 접촉하여 체험하고 실험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고 선포하여, 과학적 실험론이 17세기에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나갔다. 그리하여 머리 속에서만 생각해 낸 fiction과 실제 체험으로 확인한 truth를 확실히 구분하여 fiction을 경시하고 truth를 존중하는 사조가 팽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poetry는 자연히 외면 당하게 된다고 Willey는 다음처럼 말한다 :

For in poetry thought is not pure, it is working in alliance with the feelings and the will. In Bacon's phrase, it 'subjects the shows of things to the desires of the mind'—which is the exact reverse of the process called science. It can thus appear, and often has appeared to certain kinds of philosophers, as the enemy of 'truth.' Something has been said in foregoing chapters to indicate that in the seventeenth century these developments did actually lead to a lowering of the prestige of poetry.²¹⁾

왕정 복구기, 즉 Dryden의 시대의 영국의 climate of opinion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낸 것은 Thomas Sprat의 *History of Royal Society*라 한다. 여기에서 말하기를 학문은 그리스와 동방에서 시작했는데 이 고대의 학자(philosophers)들은 그들의 생각을 청중들에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the mixture of Fables, and the ornaments of Fancy'로 장식했었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편리했으나 후에 좋지 못한 영향이 생겨서, 그리스 학자들이 자연 현상에 까지 제멋대로 상상과 기지를 발휘하여 진실을 왜곡하게 되었으니, Royal Society의 목적은 현대에서 고대의 오류를 제거

20) Basil Willey, *The Seventeenth Century Background* (London: Chatto & Windus, 1949), p. 236.

21) *Ibid.*, p. 205.

하려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

And to accomplish this, they have endeavour'd to separate the knowledge of Nature from the colours of Rhetorick, the devices of Fancy, or the delightful deceit of Fables.²²⁾

Willey는 이말은 다시 말하자면 Royal Society가 poetry에 대하여 선전 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poetry는 학문과 진리의 영역에서 추방되고 다만 아름다운 image와 fiction으로 즐거움을 주는 구실만 하면 되고, 진리의 도구로는 poetry를 엄격히 배제한 prose를 사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Sprat는 시의 가치를 전혀 무시하고 말살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그에게는 시가 개탄스러운 주요 원인은 그것이 각종 거짓된 image와 fiction, 특히 낱아 빠진 고대 전설 신화와 미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저바리고 진실된 것을 시의 소재로 삼을 때 시도 진실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 :

The Wits of the Fables and Religions of the Antient World is well-nigh consumed: They have already served the poets long enough; and it is now high time to dismiss them; especially seeing they have this peculiar imperfection, that they were only Fictions at first; whereas Truth is never so well express'd or amplify'd, as by those Ornaments which are True and Real in themselves.²³⁾

또 고대인들은 자연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Fancies도 제한되어 있어서 그들이 알고 있던 얼마 안되는 것을 너무 자주 사용하여서 거의 다 닳아 빠지게 했다고 말을 잇는다 :

The Sweetness of Flowers, and Fruits, and Herbs, they had quite devour'd: They had tir'd out the Sun, and Moon, and Stars with their Similitudes, more than they fancy them to be wearied by their daily journeys round the Heavens.²⁴⁾

따라서 자연과학(natural philosophy)은 experiments를 통하여 Ornaments which are true and real in themselves와 시의 소재의 궁핍을 구제할 것이라는 것이다 :

22) Ibid., p. 210. 에서 인용.

23) Ibid., p. 216. 에서 인용.

24) Tillyard, p. 463. 에서 인용.

The comparisons which these [experiments] may afford will be intelligible to all, because they proceed from things that enter into all mens Senses. These will make the most vigorous Impressions on mens *Fancies*, because they do even touch their *Eyes*, and are nearest to their *Nature*. Of these the variety will be infinite.²⁵⁾

이 Sprat의 말은 Willey가 말하는 것처럼 과학이 poetry에 선전 포고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Willey의 어조로 보면 17세기에는 poetry가 experimental philosophy와 rationalism에 억눌리어서 숨도 쉬지 못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환상적인 machines가 활약하는 서사시는 더욱 생겨 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좀 시원치는 않지만 Richard Blackmore는 17세기 말에 *Prince Arthur*와 *King Arthur* 속에 방대한 양의 서사시를 썼고 그보다 좀 앞서서 Davenant의 *Gondibert*도 있었다. 특히 Milton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큰 문제이다:

With all these forces, scientific and philosophic, working together for 'Truth', and tending more and more to show up the traditional imagery of poetry and religion as obsolete, phantasmal or fictitious, how was it that the seventeenth century nevertheless produced what Dryden himself called 'one of the greatest, most noble, and most sublime poems which either this age or nation has produced' —*Paradise Lost*?²⁶⁾

그 답은 우선 Milton은 그 당시의 experimental philosophy의 사조에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Renaissance적 서사시의 이념을 확신하고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그 작품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The appearance of *Paradise Lost* in the midst of the seventeenth century, then, may be attributed in the first place to the fact that in Milton the Renaissance ideal of the heroic poem...at last found its destined English exponent.²⁷⁾

그러나 이 설명은 좀 미약하기 때문에 Willey는 계속 설명하기를, 비록 Milton은 Post-Restoration과 Royal Society의 분위기는 조금도 영향 받지 않았지만 그는 철저한 Protestant이므로 종교적 분야에 있어서의 experimenter로서 natural philosopher와 마찬가지로 종교 분야에 있

25) Ibid.

26) Basil Willey, p. 219.

27) Ibid., pp. 223-4.

어서 truth가 아닌 것을 떨시켰다는 것이다 :

The protestant abhorrence of the tinsel ('carnality') of Laudian religion, well seen in Milton's anti-episcopal tracts, was the moral counterpart of the philosopher's scorn for scholastic verbiage.²⁸⁾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그도 당시의 시대사조와 같은 자세였다는 것이다. 이런 자세의 시인에게 있을 수 있는 시의 주제의 출처는 Bible밖에 없다. 고전적 전통적 시의 주제는 이미 다 퇴색하고 마모되 버리고 진실로서 받아 들일 수 없게된 데 비하여 protestant 시인에게는 Bible이 곧 진실이며 시인 것이다. Milton은 한때 Arthur왕을 주제로 영국을 찬양하는 서사시를 쓰려고 했었으나, 왕정복구와 더불어 영국민에게 실망하여 그 계획을 버렸으니 그가 여생의 온 전력을 다 바칠 수 있는 주제는 기독교의 최고 유일의 진리인 Bible 밖에 없었던 것이다.

Willey는 이와 같이 과학적 사고가 한참 고조되어 poetry의 기운이 약화된 시대에 *Paradise Lost* 같은 위대한 서사시가 생긴 역설적인 사실의 원인을 상세히 해명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Dryden의 서사시가 없는 이유는 그의 주장에 비취 볼 때 너무 당연하여서 언급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위에 인용된 바와 같이 Dryden이 그의 만년에 가서 서사시에 대한 그의 포부와 가능성을 상술하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함을 후회한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그의 17세기 사조론은 너무나 단순화된 이론인 것 같다. Dryden이 Royal Society의 experimental philosophy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 영향은 그가 London에 상경한 후부터가 아니고 Phillip Harth가 지적한 것처럼 이미 Cambridge의 Trinity College시절부터 시작된 것이 확실하다.²⁹⁾ 그는 짧은 기간이나마 이 Society의 회원이었고 1662년의 *Epistle to Dr. Charlton*에서 영국의 과학자, 특히 Bacon, Gilbert, Boyle, 및 Harvey를 찬양했다. 또한 "An Essay on Dramatic Poesy"에서 Crites의 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당시의 과학의 발달을 찬양했다 :

Is it not evident in these last hundred years...that almost a new Nature has been revealed to us?—that more errors of the school have been detected, more useful experiments in philosophy have been made, more noble secrets

28) Ibid., p. 227.

29) Phillip Harth, *Context of Drydens's Though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pp. 17-8.

in optics, medicine, anatomy, discovered, than in all those credulous and doting ages from Aristotle to us.³⁰⁾

그러나 이 Society의 그에 대한 영향은 Poetry에 대한 그의 흥미와 포부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원래 experimental philosophy의 근본 자세는 종교와 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점을 Donal Gree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to its contemporary English apologists, the "new science" of the seventeenth century and the Christian religion appeared not merely not antagonistic but profoundly congenial and mutually reinforcing...the moral and psychological basis of the "new philosophy," as of Augustinian Christianity, is its low estimation of the inherent powers of human nature, in particular human "reason."³¹⁾

이 인간의 능력, 특히 이성을 낮춰보는 자세가 바로 Bredvold에 의해서 Dryden의 성격의 특징이라고 지적된 diffidence and scepticism을 낳게 했을 것이다. Bredvold는 지적하기를 Dryden의 마음은 독단적이 아니어서 어느 하나의 주장과 입장을 고집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것 같으나 이것은 그의 약점이기 보다 그의 이해력의 다양성과 강력함의 증거이며 오히려 그의 장점이라고 지적하고³²⁾ Dryden 자신도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자기 마음의 성격을 피력했는데 몇가지 예를 들면 첫째로 *Sylvae*에서 Lucretius를 번역함에 있어 Lucretius의 성격을 자기와는 달리 단호하고 독단적이기 때문에 그의 독단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natural diffidence and scepticism을 잠시 버렸다고 그 서문에서 썼다.³³⁾ 그리고 "Essay on Dramatic Poesy"에서 그의 태도가 "magistrial"하다는 비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

...in vindication of myself, I must crave leave to say, that my whole discourse was sceptical, according to that way of reasoning which was used by Socrates, Plato, and all the Academics of old, which Tully and the best of the Ancients followed, and which is imitated by the modest inquisitions of the Royal Society.³⁴⁾

30) W.P. Ker, I, pp. 36-7.

31) Greene, p. 51.

32) Louis I. Bredvold, *The Intellectual Millieu of John Dryden*(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34) "Introduction" 참조.

33) W.P. Ker, I, p. 259-60.

34) Ibid., p. 124.

또 *Religio Laici*의 서문에서도 그는 “naturally inclined to scepticism in philosophy”라고 했다. Bredvold에 의하면 Dryden의 이 scepticism은 Montaigne와 같은 Pyrrhonism로서 Dryden의 종교 및 정치적 보수주의와 그의 문학을 잘 설명한다는 것이다.³⁵⁾ 그러나 Phillip Harth는 이 견해에 수정을 가하여, Royal Society와 Dryden의 scepticism은 의심을 위한 의심이나 antirationalism이 아니고 학문 연구에 있어서의 독단적인 방법에 반대하는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를 말한다고 주장했다:

But as Boyle, Glanvill, and Thomas Sprat...make clear, there is an enormous difference between themselves and the Pyrrhonists in the use which they make of doubts. The Pyrrhonists, because of their theory of knowledge, “love to doubt eternally,” and “propose doubts to persuade men that all things are doubtful.” The doubts proposed by the members of the Royal Society, on the other hand, are merely temporary, the initial ingredients of a method of procedure which will lead ultimately to the attainment of undoubted truth.³⁶⁾

Dryden은 이 학문상의 scepticism을 시와 문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Harth는 말한다. 그 첫째 증거는 “Essay of Dramatic Poesy”에서 Crites와 Eugenius가 고대인과 현대인의 희극의 우열을 논할 때 Crites가 각 시대에는 제각기 그 시대에 맞는 분야가 있어서, 현대는 자연 과학 분야에서 고대를 능가하나 고대는 희극 분야에서 모든 시대를 능가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Eugenius는 현대의 시도 과학과 마찬가지로 고대인을 무조건 숭배 모방하지 않고 연구만 더한다면 고대인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이와같이 주장한다:

For if natural causes be more known now than in the time of Aristotle, because more studied, it follows that poesy and other arts may with the same pains, arrive still nearer to perfection.³⁷⁾

즉 시도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한다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뚜렷한 증거는 *An Evening's Love*의 서문에서 Ben Jonson의 희곡을 비판하면서 시에 있어서도 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독단과 맹신이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35) Louis Bredvold, ed., *The Best of Dryden* (New York: Thomas Nelson, 1933), p. xxxiv.

36) Harth, p. 12.

37) W.P. Ker, II, p. 44.

I know I have been accused as an enemy of his writings; but without any other reason than that I do not admire him blindly, and without looking into his imperfections. For why should he only be exempted from those frailties from which Homer and Virgil are not free? Or why should there be any *ipse dixit* in our poetry, any more than there is in our philosophy?³⁸⁾

이와 같이 Dryden이 experimental philosophy와 Royal Society에서 받은 영향은(Willey가 주장할지도 모르드시) 그로하여금 Poetry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인 학구 태도와 방법을 시의 연구에 적용시켜서 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했으며, 이 때문에 Dryden은 위대한 시인일 뿐 아니라 영국 비평의 아버지라고 불리울만한 비평을 남긴 것이다. 따라서 그가 당시의 시대 사조의 영향 때문에 서사시를 쓰지 못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Tillyard도 *The English Epic and its Background*에서 Dryden의 서사시가 없는 원인을 여러모로 고찰하면서 당시의 영국의 정치·사회 정세가 서사시의 탄생에 불리했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왕정복구 초기의 *Annus Mirabilis*에 표명된 영국과 영국민에 대한 기대는 곧 사라지고 영국의 정치 정세는 안정을 찾지 못했다. 1688년의 영광 혁명후에도 영국은 나아갈 방향을 확실히 잡지 못하다가 다음 세기에 들어 가서야 안정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

Politically and socially, with confusion in its counsels of state and suppression of the nonconforming sections of the community, England after 1667 was not propitious to epic writing. It was not an epic area like the England of Elizabeth.³⁹⁾

또한 Bredvold가 말한 Pyrrhonism의 영향으로 그 시대의 기질은 enthusiasm과 과격한 감정과 그에 따른 행위를 싫어하고 이상론을 앞세워 기존 체제를 혁신하는 것 보다 그것의 질서를 바로 잡는 편이 현명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처음의 기대대로 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전 시대보다 (특히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세련되고 유식하고 계몽되었다. "Such a temper did not actively encourage epic writing,"이라고 Tillyard는 말한다. 그러나 곧이어 "but it did not necessarily exclude feelings of an epic nobility,"라고 자신의 말을 수정하다가 결국은 "And

38) W.P. Ker, I, p. 138.

39) Tillyard, p. 470,

when we turn to Dryden's failure to realize his epic ambition, we must not allow his age to bear the whole blame for it.”라고 결론 짓고 만다.⁴⁰⁾

Dryden이 사서시를 쓰지 못한 탓이 그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신의 탓도 있을 것이다. Mark Van Doren은 그것은 Dryden의 재간의 부족이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Dryden의 서사시에 대한 공헌은 그의 여러 평론을 통하여 서사시를 설명하고 선양시킨 점에 있는 것이고 직접 쓸 능력은 없었다고 이렇게 말한다: “Much as Dryden revered the institution of heroic poem, he had not the power to illuminate and interpret heroic motives.”⁴¹⁾ Dryden의 재간은 그 자신이 말한 서사시인이 될 자격에 미달했고 특히 “large invention”에 약하여, “Dryden's narrative sphere was a slighter one than this, it was the sphere of the episode or the tale.”라고 단정하고 이것을 뒷바침하는 것으로, “I have heard that the late Lord Dorset...had a numerous collection of old English ballads, and take a particular pleasure in the reading of them. I can affirm the same of Mr. Dryden.”이라는 Addison의 말을 들고 있다. ballad을 좋아 한다는 것이 Dryden이 long narrative에 능하지 못하다는 좋은 증거는 못된다. 증거를 든다면 그가 그런 작품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 뿐일 것이다.

그러나 Dryden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의식했기 때문에 서사시를 못 썼다고 보는 학자가 또 있다. 그는 Mary Thrale로서 한 논문⁴²⁾에서 Dryden이 서사시를 못 쓴 원인을 상세히 고찰했다. 그의 고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학에 있어서도 정치나 종교에 있어서와 같이 과거에 잘 적응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과거를 전혀 무시해 버려도 안되고 반대로 너무 과거만을 떠받들어도 발전과 창작이 나오지 못한다. 과거를 잘 보고 거기에서 현재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Dryden의 경우에는 과거에 대하여 두 가지 상극하는 적응 양식을 취했다. 즉 희곡에 있어서는 과거를 현재에 잘 적응시켰으나 서사시에 있어서는 과

40) Ibid., p. 471.

41) Mark Van Doren, *The Poetry of John Dryden* (New York: Harcourt, Brace and Howe, 1920), p. 261.

42) Mary Thrale, “Dryden's Unwritten Epic,” *Papers on Language and Literature*, V(1969), pp. 423-33.

거를 맹신하고 맹종했다. 그의 희곡의 걸작품과 희곡의 비평은 그리스·로마의 고전 작품과 그 규칙을 17세기 영국에 잘 적응시킴으로써 생긴 것이다. 이에 반해 그가 서사시를 쓰지도 못하고 서사시에 관한 비평이 빈약한 이유는 고대인의 서사시 이론과 실재를 그의 시대에 적응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서사시에 관한 평론은 희곡에 관한 것에 비해 독창적인 것이 거의 없고 당시에 유행하던 의견을 모방했을 뿐이어서, 그의 희곡에 관한 의견은 지금도 들을 만한 것이 있으나 서사시에 관한 것은 참고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서사시에 관한 그의 실패는 비평에서 보다 시에 있어서 더하다. "Dedication to *Aureng-Zebe*"와 "Discourse Concerning...Satire"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일찍부터 서사시를 쓸 계획을 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 포부가 진지했다는 것은 그가 실제 쓴 시들의 서사시적 기질을 보면 알 수 있다. Cromwell의 죽음을 애도한 1650년대의 "Heroique Stanzas", 그 서문에서 그 서사시적 성격을 언급한 1660년대의 *Annus Mirabilis*, 그의 서사시에 흡수시키려던 많은 요소를 담은 1680년대의 *Absalom and Achitophel*, 고전 서사시를 모델로 삼았다는 1660년대와 1670년대의 heroic plays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품이 서사시적 색채를 띠었고, 만년에 가난과 노쇠 때문에 자신의 서사시를 못 쓸 때 그 대신 Virgil의 서사시 전부와 *Iliad*의 첫권을 번역했고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Iliad*의 나머지를 번역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실로 40년 이상이나 그는 서사시에 집념했었으나 결국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말았다.

"인간의 영혼이 행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숭상했던 서사시를 쓰려는 동기는 occasional poem이나, 관중의 비위에 영합해야 하는 연극 등에서는 얻을 수 없는 불휴의 명성을 얻을뿐 아니라 Homer와 Virgil이 그들의 나라에 명성을 얻어 준 것 같이, 자기 나라의 이름을 드높히려는 것이었다. 이 꿈을 이루지 못한 쓰라림은 컸을 것이다.

그 원인은 일면으로는 Dryden의 외부적 상황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Charles 2세가 말로만 장려하고 보조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를 벌기 위해서 연극을 쓰는 데만 힘을 쏟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연극만 쓰고 서사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연극에 관한 좋은 비평은 나왔으나 서사시에 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heroic play에서 그는 서사시에 가까운 것을 썼기 때문에 그전의 서사시와 그

가 쓰는 것 사이에 차이를 느꼈을 것이고 여기에서 고대와 현대의 사정을 재평가 함으로써 연극에서의와 같이 서사시에 대해서도 빼있는 비평이 나와야 했을 것이다. 더구나 정말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면 적어도 한 권 정도는 써서 Tonson의 시화집에 포함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연극을 쓰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수입이 많았던 때도 몇 년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가 서사시를 못 쓴 진정한 이유는 그가 Virgil의 서사시를 지나치게 숭상했다는 점에 있다. 시인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작품에서 자극과 고무 받을 수 있으나, Dryden의 서사시에 있어서서는 오히려 그 위대한 선례 때문에 위압 받고 마비되어 그들과 겨루어 볼 생각도 못 했다. Dryden에게는 희곡은 마차나 의복처럼 일상 생활의 일부로서 존경과 경외심 없이 대할 수 있었으나 서사시는 “the greatest work which soul of man is capable to perform”이란 정의의 “soul”이라는 낱말이 암시하듯이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었다. 희곡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질은 관중의 기호에 좌우 되지만 서사시는 자기 나라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관중의 기호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Dryden은 Homer와 Virgil에 압도되어 이 기준과 규칙을 반성 없이 무조건 맹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A Discourse Concerning...Satire”에서 규정한 서사시인의 자질은 터문이 없이 높은 것이다. 그는 현대의 극작가, 특히 Shakespeare는 Sophocles와 Seneca를 능가한다고 믿었으나 Homer와 Virgil은 그 근처에도 갈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 두 시인 중에서 Virgil을 더욱 경외했다. Dryden은 Homer의 “firerey way of writeing”을 찬탄하기는 했지만 Virgil의 시의 성격이 Dryden의 시대에 요구되기 때문에 Virgil에 더 호감이 갔다. 이 Virgil에 대한 절대적인 숭상 때문에 Dryden의 Virgil 이후의 서사시에 대한 비평이 진부하고 우둔하다. Dryden은 이 서사시들을 따로 따로 시의 본질에 비추어 보지 않고 무조건 *Aeneid*를 반영하는가 안 하는가로 심판한다. 또 더욱 나쁜 것은 서사시에 대해서 프랑스와 이태리 비평가들이 세운 규칙 (Franco-Roman rules)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 들인 것이다. 그가 영국의 연극을 옹호할 때는 Franco-Roman rules와 싸웠으며 여기에서 그의 연극 비평이 강해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서사시 비평은 매우 무미 건조하다. 그 결과는 그의 Milton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Virgil과 Homer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와 그들의 서사시에서 유래

했다고 하는 규칙을 맹신하지 않았더라면 Dryden은 Shakespeare를 신격화한 것처럼 *Paradise Lost*를 영국에 명예를 안겨 준 현대의 서사시로 높이 떠 받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서사시의 개념은 오로지 Virgil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비록 *Paradise Lost*를 “one of the greatest, most noble, and most sublime poems which either this age or nation has produced”라고 보았지만, 위대한 서사시로는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His subject is not that of an Heroic Poem...”, 또는 “his event is not prosperous...”이고 고전의 서사시와는 달리 good character (Adam)보다 bad character(악마)가 주인공이며 human character 보다 superhuman character가 더 많다는가 하는, 오늘날에서 보면 문제도 안되는 것들이다.

Dryden이 품고 있던 Virgil적인 서사시의 개념이 무엇이며 얼마나 경직한 것인가는 그가 “A Discourse Concerning...Satire”에서 현대의 기독교적 서사시의 가능성을 논한 모양에서 엿볼수 있다. 여기에서 Christian belief를 가지고는 서사시를 쓰기 힘든 두 가지 애로점을 논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 했는데, 이때 그는 Virgil적 서사시의 개념에 사로 잡혀서 서사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기독교적 이념을 이교적 정신에 입각한 고대 서사시에 적용시키려 애썼다.⁴³⁾

Dryden이 쓰려던 서사시의 계획 속에는 Virgil적 요소가 듬북 들어 있다. 그가 서사시를 쓰려는 목적도 *Aeneid*와 같이 “chiefly for the honour of my native country”이고 그가 생각했던 하나의 주제, 즉 King Arthur의 Saxon족 정복은 애기의 무대를 먼 옛날에 설정함으로써 Virgil이 한 것처럼 많은 세부 사항과 episode를 꾸며 낼 수 있게 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주제, 즉 Edward the Black Prince가 Spain의 왕위를 정당한 사람에 되찾아 준다는 얘기는 “Virgil과 Spencer의 예에 따라” 그의 천주와 patron을 찬양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그 어느 쪽의 주제를 택했던 간에 천사를 machinery로 썼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Virgil에 대한 경의심에 방해되어 그 어느 주제에 대해서도 서사시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명백한 난점은 Christian machinery에 있다. 그는 Virgil의 시에 초자연적인 존재 즉 machines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서사시에도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느꼈고, 또 Virgil이 서사시인은 그 사회의 종교의 윤곽을 제시하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43) 위 pp. 41-42 참조.

현대의 machinery는 기독교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Dryden이 어떻게 Arthur왕의 수호 천사와 Saxon족의 수호 천사 간에, 또는 영국의 수호 천사와 Spain의 그것 사이에 수공이 가는 싸움의 얘기를 꾸밀 수 있었겠는지는 상상하기 매우 어렵다. 더구나 일반 대중은 모두가 영국 역사, 특히 Black Prince의 역사는 Dryden이 사용하려던 그런 초자연적인 machinery의 영역 밖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와 같은 machinery를 덧붙인다는 것은 어색한 효과를 냈을 것이다. *Iliad*, *Aeneid*, *Paradise Lost* 및 *Davidid*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개입이 많다고 생각했던 먼 옛날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서사시에는 machinery가 적절했던 것이다. 그러나 Arthur왕의 환상적인 전설이나 현실적인 Black Prince의 역사에 천사를 개입시킨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었을 것이다.

만약 Dryden이 그토록 Virgil의 선례에 압도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초자연적인 machinery를 사용하는 것이 그의 시대에 일고 있던 사조와 양립할 수 없음을 시인했었을 것이다. 신학에서는 사고가 rationalistic하게 되어 가고, 과학에서는 Newton이 기계적 우주관의 기반을 닦고 있었다. 천사와 기적은 현대 생활에서 밀려나가고 먼 옛날 구약 성격의 시대에 쫓겨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omer와 Virgil 및 그 추종자들이 machines를 썼기 때문에 Dryden은 그와 같은 장치의 사용이 시대에 맞지 않음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선례와 합리성과 미학이라는 견지에서 그것을 옹호했다.

Virgil의 선례는 또한 Dryden에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볼 여지를 남겨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서사시를 못 쓰게 했을 것이다. 그가 고대인들과 겨뤘던 본 딴 종류의 시에 있어서는 그들이 그것을 완성치 못했고 모든 면에서 그들을 추종할 필요가 없었으며 따라서 그들을 능가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볼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서사시에 있어서는 그 반대였다. Virgil은 Homer가 시작한 것을 완성시켜버려서 그 이상 더 발전시킬 여지가 없었다. Mary Thrale은 요컨대 Dryden이 Virgil 때문에 무능화되었다고 단정하고 다음 같이 결론 내리고 있다:

Dryden's difficulties with the epic, compounded of attraction and impotence, seem a particular case of a more general phenomenon, the inhibiting effects of worshipping the past. That phenomenon itself is not so remarkable. What is remarkable is that so frustrating a relationship with the past should have existed side by side with one of the fruitful relationships in English litera-

ture.

이 매우 박식하고 명석한 논문에 대하여 별로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없겠으나 한 두가지 의심이 나는 점이 있다. 첫째는 Dryden이 Virgil을 숭상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때문에 서사시를 전혀 못 썼다는 것은 과언일지 모른다. 그가 서사시를 쓸 계획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때 Dryden은 그가 그렇게 숭상하는 Virgil을 능가하거나 그와 겨뤄 볼 생각은 감히 안했을 것이다. 그는 Homer와 Virgil은 “the two ancient epic poets, who have so far excelled all the moderns”이므로 “let Homer and Virgil contend for the prize of honour betwixt themselves: I am satisfied they will never have a third concurrent.”⁴⁴⁾라고 했는데, 이와 비슷하게 연극 분야에서는 현대인을 존경하여 “Peace be to the venerable shades of Shakespeare and Ben Jonson! none of the living will presume to have any competition with them; as they were our predecessors, so they were our masters.”⁴⁵⁾라고 말하고 있다. 이 찬사가 전혀 빈말이 아니라면 Dryden이 연극을 쓴 것은 Shakespeare와 경쟁하기 위함이 아니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서사시도 Virgil와 경쟁하지 않더라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하나의 문제는 만약에 Dryden이 Virgil의 서사시에 압도되지 않았더라면 당시의 과학 정신의 번창과 합리주의 사조 때문에 supernatural machinery를 시에 쓸 수 없음을 인정했을 것이라고 지적한 점이다. 이 말은 좀 더 발전시킨다면 그 당시에는 이미 과학과 합리주의 정신이 너무 팽배하여 Homer나 Virgil적인 서사시는 생겨날 수 없었다는 말이 된다. 위에 인용된 바와 같이 Basil Willey도 같은 어조로 Dryden이 제창한 machinery를 썼더라면 세상 사람들의 웃음 거리가 되었을 것이라 했다. 또 이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though Pope and his contemporaries were debarred by their intellectual climate from using any great system of commonly-accepted symbols, as Dante and Milton could, they would still employ mythological material for other purposes, as Pope did in the *Rape of the Lock*, for example. They could use it consciously for technical convenience and for purposes of ‘delight’.⁴⁶⁾

44) “Dedication of *Examen Poeticum*,” W.P. Ker, II, p. 14.

45) *Ibid.*, p. 5.

46) Willey, p. 297.

‘delight’뿐만 아니라 ‘instruction’을 위해서도 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에 있어서는 literary truth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시의 목적과 효과를 위해서는 fiction을 상징으로 또는 장식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Dryden도 당시의 시대 사조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Christian machinery를 제창한 것은 무식해서가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다음과 같은 그의 시에 대한 신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You are not obliged, as in history, to a literal belief of what the poet says; but you are pleased with the image, without being cozened by the fiction.”⁴⁷⁾ 또 그가 다음과 같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사용을 옹호하는 것도 반드시 Virgil에 압도되어서 만든 아닐 것이다:

For my part, I am of opinion that neither Homer, Virgil, Statius, Ariosto, nor English Spencer could have formed their poems half so beautifully without those gods and spirits, and those enthusiastic parts of poetry which compose the most noble parts of all their writings.⁴⁸⁾

Dryden과 그 시대 사람들이 Homer와 Virgil을 즐기고 숭상한 것은 그들의 machinery를 문자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또한 Dryden이 Christian machinery의 가능성을 제창한 것은, 서사시의 무대가 기독교인 세상에 이교의 신들을 machinery로 동창시키는 것은 모순인 고로 거기에 어울리는 기독교의 천사를 잘 연구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시의 효과에 기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독자들이 종교적인 신앙으로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Dryden의 그 어느 글에서도, 특히 “A Discourse Concerning...Satire”의 그 어느 곳에서도 당시의 합리주의와 과학이 서사시의 출현을 방해하고 있다거나 그 자신도 그것 때문에 서사시를 못 썼다고 하는 암시는 하나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현대적 서사시의 가능성을 분명히 거듭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사시의 실패의 원인을 딴 곳에서 찾으려는 학자가 많은 것은 이상한 일이다. 다음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A Discourse Concerning...Satire”는 원래 풍자 문학을 논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것이 그의 시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마지막 기회라

47) “The Author’s Apology for Heroic Poetry,” W.P. Ker, I, p.185.

48) “Of Heroic Plays: An Essay,” W.P. Ker, II, pp.152-3.

고 생각하고 일부러 본론에서 멀리 이탈하여 서사시를 논한 것이다 :

By this time, my Lord, I doubt not but that you wonder, why I have run off from my bias so long together, and made so tedious a digression from satire to heroic poetry. But if you will not excuse it by the tattling quality of the age...yet I hope the usefulness of what I have to say on this subject will qualify the remoteness of it; and this is the last itme I will commit the crime of prefaces, or trouble the world with my notions of any thing that relates to verse.⁴⁹⁾

우리는 이 귀절에서 Dryden이 서사시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숙고했고, 그 생각을 세상에 알리기를 얼마나 원했는지를 역역히 볼 수 있는 동시에 또한 서사시가 그 당시에든 가능하다는 그의 확신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이 귀절과 대조 시키면서 위에 이미 인용된 Dryden의 말, 즉 "...with these helps...I might perhaps have done as well as some of my predecessors, or at least chalked out a way for others to amend my errors in a like design."을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의 뜻은 먹고 살 돈만 있었다면 Homer나 Virgil만큼은 아니었다더라도 그 후의 서사시인들 만큼의 작품은 쓸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실패작을 썼다 하더라도 탄 시인의 참고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여기서도 Dryden이 시대사조의 영향이나 자신의 능력 부족, 또는 Virgil에 대한 숭상 때문에 서사시를 안 썼다는 암시를 찾아볼 수 없다. 일찌기 Dryden이 Mulgrave경에게 바친 글에서도 서사시의 계획을 중단한 이유로 강조한 것은 생활비의 부족이었다: "the unsettledness of my condition [i.e. lack of money] has hitherto put a stop to my thoughts concerning it [epic writing]. As I am no successor to Homer in his wit, so neither do I desire to be in his poverty."⁴⁹⁾ 이렇게 뚜렷한 본인의 진술 앞에서는 그것을 반박할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 들여야 옳을 것이다.

현대 문학의 난해성과 불분명함에 비하여 Dryden 시대의 문학적 특징의 하나는 표현이 분명하고 명석하다는 점일 것이다. 그 특징에 어떤 명칭을 부치던 간에 그 당시의 작가는 복잡, 난삽, 불분명한 표현을 배격하고 명확과 정확성을 신조로 삼았으며 작가의 의도가 독자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문학의 구실은 작가의 의도를 효과 있는 언어,

49) Ward, p. 111. 에서 인용.

이미지, 비유, 상징 등으로 멋있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따지고 보면 같은 내용이 좋은 문체나 멋없는 문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글의 내용, 즉 의미는 문체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비평은 문체와 의미는 불가분하다고 보는 principle of organic form을 신봉하게 되어서, 현대의 학자들은 소위 Augustan 문학의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다고 보는 의미를 찾아 내려고 애쓰고 있다고 Ehrenpreis는 말하고 있다 :

In keeping with the supposed principle of organic form some modern scholars give their best energy to the labor of drawing meaning out of what Dryden would have considered the secondary elements of an Augustan poem, viz., the connotations of words, figures, images, allusions. In so doing, the scholars naturally give small attention to the explicit passages, except to suggest that those are less explicit than they sound.⁵⁰⁾

여기서 생겨나는 결과는 18세기 문학의 새로운 해석에 있어서 표면에 나타난 의미의 경시 또는 무시, “a flight from explicit meaning”이라고 Ehrenpreis는 지적하고 이것 때문에 생긴 여러 엉뚱한 해석의 예를 들고 있다. Dryden의 명백한 진술을 그대로 받아 들이지 않고 그것이 다만 그의 약점을 은폐하려는 위장으로 보고⁵¹⁾ 단 곳에서 그의 서사시의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는 것도 a flight from explicit meaning의 일종일 것이다. 그것은 학자의 심심풀이는 될지 모르나 진리 탐구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50) Irvin Ehrenpreis, “Meaning: Implicit and Explicit,” *New Approaches to Eighteenth-Century Literature* (New York and Lond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p.119.

51) 18세기 영문학을 위장의 문학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Maximillian E. Novak편찬의 *English Literature in the Age of Disguis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참조.